

#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5월 8일



## 복음 나누기

부활 제4주일 (5월 8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요한 10,27-30)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5번 "착하신 목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저희에게 당신 목소리를 들려주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요한 10,27)

얼마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 10,30)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일치되어 있기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며 기꺼이 행합니까? 아니면 의무감에서 마지 못해 하고 있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요한 10,27-28)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는 것은 목자를 따라갔을 때 배부르고 안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목자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더 민감해 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 떼입니다. 양 떼인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해지고, 그분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총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 줄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커질 때, 그분의 부르심과 음성이 더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착한 목자는 자신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고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앞서기에 주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세속의 소리에 더 귀가 열리고 마음이 가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9번 "부드러운 주의 손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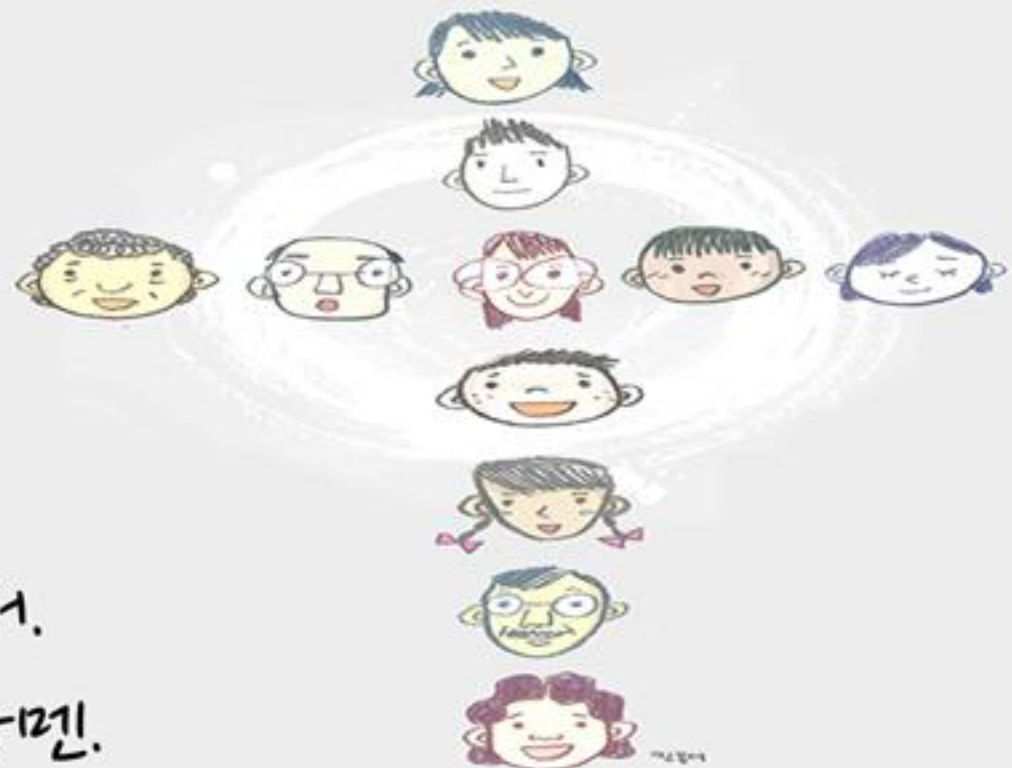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 선교하는 소공동체 - 왜 선교해야 하는가?

소공동체와 선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선교는 일부 열심한 사람의 몫이라고 여겨 선교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은 본당 전체 신자 중에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선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요한4,16). 선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는 성부의 사랑과 자비에서 분출한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의해 성자와 성령의 파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선교교령 2,3,4항).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며 최초이자 최대의 복음 선교자시다. 예수님은 일생동안 복음을 선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 교회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마르 1,1; 로마1,1-3; 현대의 복음선교 7,8항).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고 말씀하셨다(루가 4,43; 마르 2,38)

<다음 호에 계속...>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